



기톨릭 직장인

2025년 겨울호 통권 322호



천주교서울대교구 직장시목집



가톨릭 직장인

2025년 겨울호 통권 322호



표지설명

우리가 지나온 자리가, 시간이 지나면 하나의 길이 됩니다.
처음엔 누구도 걸어본 적 없는 볶선 땅이었지만,
그 발자국들은 뒤따라 오는 이들에겐 조용한 안내판이 됩니다.
누가 만들었다고 드러내지도 않고, 누가 지나가기를 바라지도 않고,
그저 묵묵히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03 묵상글

- 사목일기** 04 네 시가 가까워 올수록 김명중 시몬
18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힘 김도훈 라파엘
30 겨자씨의 반전 강혁준 아우구스티노

wyd 소식 08 세계청년대회 준비 과정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교리 산책 14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행복의 길 조한규 베네딕토

산티아고 가는 길 40 산티아고 도보순례 ⑧ 심연선 소화테레사

말씀새기기 34 요한 복음을 시작하며 편집부

병원단상 46 곁에 함께 있어 주는 것의 힘 장경민 시메온

교정단상 50 들키지 않은 죄인 송정섭 시몬

울뜨레야 신앙수기 24 폭풍 같은 은총 장선임 루시아

성가대 이야기 56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시편 71,14) 손자민 소화테레사

나의 일터, 나의 신앙 21 임마누엘, 나의 예수님 조서연 마리아

52 금융감독원에서 만나는 작은 성당, 가톨릭교우회 이야기 전성우 바오로

복음 묵상 28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루카 17, 10) 김종호 야고보

54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루카 12, 40) 김종호 야고보

직장인 성지 Guide 16 은이성지 윤정민 마틸다
38 골배마실 성지 윤정민 마틸다

60 틀린그림 찾기

62 News & Views





나는 무엇이든 다 하느님을 위해서 합니다.

• 이렇게 할 때 아무런 손해도 볼 수 없고,
또 남을 위해 치른 수고는
언제나 한결 좋게 하느님께서
내게 갚아주심을 믿습니다.

– Sta. Teresia a Iesu Infante –



네 시가 가까워 올수록

기다림이라는 이름의 사랑

김명중 사제 신부_사목국 직장사목팀



‘렐리리~ 렐리리~’ 갑작스레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들, 저기… 그… 지난번 쿠팡에서 주문한 거, 언제 오
냐?” “네, 그제 주문했으니까 수요일쯤 도착할 거예요.”

이제는 이런 연락이 전혀 낯설지 않다. 일주일에 한두
번, 나는 부모님께 작은 택배를 보내드린다. 자식으로서
느끼는 소소한 기쁨, 그리고 묵묵한 도리이자 감사의 표
현이다.

명동 교구청에서 도림동 숙소로 돌아오는 길에는 가
끔 부모님 댁에 들르곤 한다. 아파트 마당에 들어서면
늘 벤치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한 노인이 눈에 들어온
다. 그리고 그 노인은, 나를 향해 환하게 손을 흔든다. 아
버지이시다. 외부 업무로 근처를 지날 때면, 잠시 커피
라도 마실 겸 집으로 발길을 돌린다. 그리고 그곳 마당
에는 늘 한결같이 한 노인이 담배를 태우고 있다.

“어? 아버지 나와 계셨어요?”

아버지와의 조우(遭遇)를 몇 번 마주하면서 알게 되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지나쳐 왔던 순간들이 언젠가 우연이 아니었음을. 아버지는 아들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다. 마치 성경 속 ‘잃어버린 아들(루카 15,11)’ 이야기의 주인공처럼, 아버지는 한곳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담배를 피우고 계셨다. 그 순간 깨달았다. 부모의 마음이란, 결국 ‘기다림’이라는 것을.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이 돌아오기를, 그저 한 번이라도 더 마주하기를 오매불망 기다리며 서 있다.

삶에서 기다림은 무엇일까? 그대는 지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
기다림은 희망의 또 다른 이름이다.
기다림은 과거에 머물지 않고,
더 나은 나로 나아가려는
존재의 날개짓이다. 살
아 있다는 것, 우리의
삶은 곧 기다림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한 아이를 품은 어머니는 출산의 날을 기다리고, 아이들은 아버지의 퇴근과 그 손에 들린 간식을 기다린다. 비 오는 날 정류장의 사람들은 버스를 기다리고, 연인들은 영화관에서 설레는 만남을 기다린다. 신부의 아버지는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걸어 나오길 기다리고, 아이들은 소풍 전날 아침이 오기만을 꼬박 기다린다. 새벽 미사 1분 전, 수녀님은 보좌신부님을 기다리고, 직장인들은 고된 목요일을 지나 주말을 기다린다.

우리는 사람을 기다리고, 때를 기다리며, 곧 다가올 그 순간을 희망으로 품는다. 그렇기에 ‘기다림’이란 창조주의 선물(膳物)이다. 기다림은 카이로스(Kairos) 안에 숨겨진 하느님의 손길이며, 시간 속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전네는 따뜻한 초대장이다. 이 시간들을 쌓아가며 인간은



창조주의 축복을 온전히 발견한다. 소설 '어린왕자(Le Petit Prince)'에서 여우는 이렇게 말한다. “만약 네가 오후 네 시에 온다면, 나는 세 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네 시에 가까워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12월 25일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룩한 때, 많은 이들이 겨울철의 한 점인 그 날을 기다린다. 그 때와 그 시간이 다가올수록 숨죽이며 설레임으로 기다리는 이는 그대인가 아니면 그분인가? 네 시가 가까워 올수록 이 특별한 만남을 기쁨으로 의미 지으며 행복해하는 이, 그대인가 아니면 그분인가? 인간이 창조주와 약속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이미 설렘과 행복의 여정은 시작된다.

인간은 기다리는 존재이자, 희망하는 존재,
그리고 질문하는 존재이다.
시간 속에서 인간은 묻고 답을 기다린다.
그리고 마침내...
응답을 받는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마태 17,5) 

세계청년대회 준비 과정

서울대교구 홍보위원회

지난 8월 3일, 레오 14세 교황님께서는 ‘2025년 젊은이의 희년’ 파견미사에서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일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셨습니다. 본 대회는 2027년 8월 3일(화)부터 8월 8일(주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며, 그에 앞서 젊은이들은 7월 29일(목)부터 8월 1일(주일)까지 서울을 제외한 각 교구를 방문해 ‘교구 대회(Days in the Dioceses)’에 참여하게 됩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공식 홈페이지(<https://wydseoul.org>)에서는 남은 일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2025년 10월 15일 기준으로 “D-657”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이제 2년도 채 남지 않은 서울 WYD를 향해, 우리가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조직위원회(LOC)는 무엇인가요?

세계청년대회의 역사가 깊어지면서, 대회를 준비하는 일정한 절차와 구조가 자리 잡았습니다. 대회를 맡은 교구는 ‘지역조직위원회





위와 아래 : 젊은이의 희년 파견 미사 사진, 출처 2027 서울 WYD 조직위원회



wyd 소식

(Local Organizing Committee, LOC)'를 구성하게 되는데, 서울대교구는 2023년 12월 14일 LOC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현재 명동대성당 영성센터에 위치한 LOC는 교황청 평신도가정생명부와 협력하며, 대회의 기본 조직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대회를 실제로 이끌어갈 국내외 봉사자들, 그중에서도 젊은 이들이 안정적이고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세계청년대회를 누가 준비하고 있나요?

세계청년대회의 준비는 교회의 여러 세대가 함께 어깨를 맞대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4년 1월 25일, 청년과 장년, 수도자, 사제들로 구성된 '기초연구팀'이 먼저 모여 서울 WYD의 사목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준비 과정이 본격화되었고, 같은 해 12월 13일에는 1기 봉사자, 2025년 7월 18일에는 2기 봉사자가 모집되어 대회 준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29개 팀에서 약 300

명의 봉사자가 활발히 활동 중입니다.

이들은 교황 권고 '그리스도는 살아 계십니다'와 '서울 WYD 기초문헌'을 함께 읽으며, '성령 안에서의 대화'를 통해 세계 청년대회의 의미를 나누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단순한 행사 준비를 넘어, 각자의 삶 속에서 하느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어떤 말씀을 건네고 계신지 성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일정 기간마다 기수를 나누어 선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언제든 함께하고 싶은 이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상시 봉사자 모집 체계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LOC는 언제나 열려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 그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청년대회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본 대회는 5박 6일의 일정이지만, 그 대회에 이르는 모든 여정을 통틀어 우리는



젊은이의 희년 파견 미사 사진, 출처 2027 서울 WYD 조직위원회

그것을 ‘세계청년대회’라 부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젊은이들을 부르시고, 그들의 고민과 아픔을 위로하시며, 꿈과 열망을 함께 나누시기 때문입니다. LOC와 봉사자들은 이러한 영성을 널리 알리고 나누기 위해 여러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의 청년, 수도자, 사제 등 75명이 모여 1박 2일간

공식 기도문을 작성하는 피정을 가졌습니다. 또한, ‘우리 공동의 집, 지구’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4월과 10월에 월드컵공원에서 나무를 함께 심는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이 ‘나무 심기’는 이전 WYD부터 이어온 전통으로,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더불어,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신앙 안에서 성찰하는 ‘슈퍼 클래스(Super Class)’를 2025년 9월부터 격월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본당에서 WYD를 주도적으

로 이끌 젊은이들을 위한 ‘WYD 청년 리더십 연수’도 매달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활동은 소셜미디어(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를 통해 국내외 젊은이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 하실 때, 한 번씩 들어와서 함께 마음을 나누어주셨으면 합니다.

세계청년대회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연재의 첫머리에서 말씀드렸듯, 세계 청년대회는 “하나의 신앙을 가진 젊은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각자의 체험을 증언하고, 신앙의 유산을 나누며,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수십만 명의 젊은이가 서울에 모이겠지만, 그 체험은 참가자만의 뜻이 아닙니다. 이들을 맞이하고 함께할 한국 교회의 모든 신자들 또한 같은 은총의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이 이 시간을 함께



기다리고 준비했으면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교황 권고는 물론, 곧 발간될 ‘기본계획서’와 ‘영성과 목표’를 함께 읽으며, 교회의 꿈과 비전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대회 기간에는 순례자들이 본당과 가정(Home Stay)을 통해 머물게 될 텐데, 그들이 보편 교회 안에서 하나의 가족임을 느낄 수 있도록 환대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나무심기, 출처 2027 서울 WYD 조직위원회

니다. 또한, 그리스도교를 낯설게 느끼는 이웃들에게 WYD의 의미를 전하고, 대회 기간 중 불편함이 있다면 미리 양해를 구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2024년 2월 14일 시작된 ‘목주기 도 10억 단 바치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

참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안에서도 서울 WYD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2027년 8월까지의 이 모든 시간이 한국 교회와 우리 모두에게 하느님을 깊이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행복의 길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_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인간 삶이란 행복하기도 쉽지 않고, 유지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삶은 고해’(苦海)라는 부처님 말씀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한 인간으로 사는 것은 결코 쉽거나 만만하지 않음을 대부분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삶에서 고통과 고민을 줄이고, 행복이 가득한 삶은 가능할까요?

“날 수 셀 줄 알기를 가르쳐 주시어, 우리들 마음이 슬기를 얻게 하소서”(시편 89,10).

‘날 수 셀 줄 알아야’ 인간은 지혜와 슬기를 얻는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날 수 해아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젊고 힘 있고 즐거울 때 사람들은 하느님

이 있어도 좋고, 없어도 별 문제없다고 여깁니다. 하지만 지난 온 날,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날을 해아린다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철이 듣다는 것은 나에게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삶은 앞으로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뒤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 보통 죽음 앞에서 깨닫게 됩니다. 죽음이 가까워 오면 인간은 철이 들게 됩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겸손해지고, 하느님을 찾게 됩니다. 삶의 목적은 결국 죽음입니다. 결국엔 다 죽기 마련입니다. 동시에 죽음의 의미는 삶입니다. 삶 없이 죽음도 없기 때문입니다.

날 수 셀 줄 안다는 것은 결국 인간이 유한한 존재이고,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동시에 날 수 셀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금 이 순간 기쁘고 성실하게 살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혜 가진 사람은 작고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않고, 또한 자신이 누군지, 하느님이 누구신지 깨달을 수 있기에,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행복하게 삽니다.

언제, 어떤 때에 행복하다고 느끼는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누구나 공통적으로 느끼는 두 가지 행복한 상황이 있습니다. 첫째, 모든 사람은 좋은 사람과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편안하고 좋은 분위기에서 맛난 음식을 먹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둘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 할 때 우린 행복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 한다면, 우리 역시 눈물 나게 행복합니다. 자식을 둔 부모님은 쉽게 공감하지 않을까 싶네요. 또한 하느님께서도 그러시지 않을까 싶네요.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다면,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웃으면서 하느님께 기도하며 희망한다면, 하느

님께서 행복해 하시지 않을까요? 하느님을 기쁘게 해 드립시다!

이탈리아 아씨시의 산타 마리아 성당 광장에는 ‘Pax et Bonum’(평화와 행복)이라 적혀 있습니다. 평화를 통한 행복, 행복을 통한 평화! 행복을 가져다주는 평화란 무엇일까요? Pax, pace, peace,... 이 단어의 라틴어 동사형은 ‘pacificare’인데, 이 단어의 대표적 뜻은 ‘평정하다’입니다. 즉, Pax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평화란 원래 남을 정복해서, 상대방을 굴복시켜서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Pax Romana, Pax Americana 등의 예처럼 힘에 의한 평화가 Pax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평화(Pax)란 절대자에게, 즉 하느님에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굽복하고 순종하여 얻는 평화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의탁하여 얻는 평화가 참된 평화입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행복의 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순종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한 8,32). 진리이신 예수님께 순응하는 것이 평화의 지름길이고, 행복한 삶의 과정이고 핵심이며 결론입니다. ◉

은이성지

윤정민 마틸다



‘은이’는 숨겨진 마을을 뜻하며 1830년대 이미 천주교 신자들의 은신처로서 교우촌이 형성된 곳입니다. 한국 최초 사제인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는 소년 시절 골배 마실 터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며 1836년 은이성지에서 모방(Maubant) 신부에게 세례와 첫 영성체를 받고 신학생으로 선발됐습니다. 이후 1845년 마카오에서 유학, 상해에서 사제 서품을 받은 김대건 신부는 귀국 후 은이 공소를 중심으로 서울과 용인 일대에서 사목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순교 전 공식적으로 마지막 미사를 봉헌한 곳이 은이성지입니다.

용인시 향토 유적 제71호인 김가항 성당은 17세기 중반 중국 상해의 김가항 지역에 민가 건축을 개조해 만든 성당으로,

김대건 신부가 1845년 8월 사제 서품을 받은 성당입니다. 2001년 상해 정부의 도시 개발 계획에 따라 철거되기 전, 수원교구는 성당 구조를 실측하고 기둥, 대들보 등 일부 자재를 가져와 은이성지에 복원했습니다.

김대건 기념관에서는 김대건 신부의 일대기와 사목 활동을 정경식 대건 안드레아 작가의 간결한 조형미와 빛의 표현을 통해 성찰할 수 있으며, 19세기 교리 필사본 등 다양한 유물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요한 풍경과 함께 김대건 기념각도 만날 수 있습니다. 남곡리 성당의 2대 본당신부인 파리 외방전교회 에밀리오



포신부는 1947년 김대건 신부님의 기념 경당을 본당 옆
공터에 지었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과 기념각 이전 중
소실되었고 남아있는 사진을 바탕으로 은이성지에 복원
하여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을 기억하고 현양하고 있습
니다. +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힘

김도훈 라파엘 신부_사목국 직장사목팀



서울역사 건너편, 서울역 12번 출구에서 300여 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올리베따노성베네딕토 수녀회 서울분원이 있습니다. 서울역 근방을 생각하면 국보 1호 남대문과 멋진 서울시청, 드높이 솟은 빌딩과 수많은 인파를 쉽게 떠오르시겠지만, 신기하게도 수녀원이 있는 서울역 12번 출구 인근은 높은 빌딩에 가려져 더 깊게 숨어있는 듯이 보이는 쪽방촌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서울교구에서는 현재도 가톨릭사랑평화의 집을 운영하며 수녀원 인근의 쪽방촌 주민에게 매주 도시락을 배달하고 있고, 본인도 코로나가 한창일 때, 사회사목국 신부님들과 도시락 배달을 했던 곳입니다. 사람이 살 만한 곳이 못 되는 공간을 더 쪼개고 쪼개서 살아가는 사람들,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면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생활과 주거공간. 사람들은 더욱 예민해져 있고 더욱 화가 나서 씩씩대던 모습을 쉽게 보던 장소로 기억합니다. 수녀원에서는 그러한 장소적 특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나아가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를 원하셨고, 수녀원을 지나다니는 행인분들이 골목을 오갈 때, 두려움에 다니기

보다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으며 다니기를 바라셨지요. 그래서 고민 끝에 올리베따노수녀원 소속 시인 이해인 수녀님의 시를 골목의 담벼락마다 한 편씩 쓰고, 더불어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는 벽화로 배경을 꾸며 살아있는 골목으로 만들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너무 잘하신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오고가는 행인들에게 시와 그림은 알게 모르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계획이 잡혀도 수녀원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일손이 부족한 게 현실이지요. 다행히 우리 직장인사목팀은 좋은 인연으로 수녀님께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직장인 사목팀의 교우분들을 중심으로 봉사팀을 꾸려 수녀님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해주기로 하였지요. 최초 20여명의 봉사자를 구하는 것이 막막하였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신청이 되었습니다. 늘 직장인사목팀의 매사에 발벗고 도와주는 AESUS 성가대 단원들과 직사팀 울뜨레아 팀원불들의 신청만으로 쉽게 인원의 구성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면 서울시공무원협의회 분들과 국회의 다산회 회원님들께도 요청해봐야겠구나 싶었는데, 우려했던





것 보다 너무나 쉽게 손을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셨습니다. 천사들이 많은 따뜻한 직장인사목팀공동체입니다. 덕분에 수녀님들이 리드와 봉사자분들의 순종적 현신적 도움으로 무사히 작업을 마쳤습니다. 물론 당일 새벽까지 내린 많은 양의 비 덕분에(?) 충분히 도와드리지 못했다는 것이 큰 아쉬움이지만 소정의 목적을 달성하고 마칠 수 있었으며 지금은 수녀님들의 마무리 작업으로 아름다운 시와 벽화가 있는 골목길이 완성되었습니다.

명동에서 퇴근하는 길에 가끔 수녀원 앞에 들려 길을 다시 보고는 합니다. 별거 없어도 모이면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는 법이듯, 우리의 작은 도움이 모여서 만든, 짧은 골목의 작은 변화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살아가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작지만 힘을 보태어 준 작은 천사님들, 기도해주시고 후원주시는 분들, 나를 넘어서 타인과 세상을 향해 있는 열린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서 세상은 살아가지는 거 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임마누엘, 나의 예수님

조서연 마리아_국회 교우회

매일 뉴스에 나오는 곳, 많은 의견 차이 속에서 총의를 모아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곳. 어쩌면 국회와 하느님의 성전은 안 어울리는 조합으로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국회에도 성체가 모셔진 경당이 있고, 매주 수요일 낮이면 직장사목팀

신부님(김도훈 라파엘 신부님)께서 오셔서 점심식사 전에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종종 유아세례와 혼배예식 등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저는 국회사무처에 변호사 특채로 입사하여 지금은 보건복지위원회 입법조사

국회 로텐더홀에서 신부님과 함께



관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의 입법조사관이 하는 일은 각 의원들이 낸 개정안, 제정안 등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국회법 제58조제1항)를 위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하여 쟁점사항을 정리하며, 정부 부처와 협의하여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등 조정을 하여 회의자료로 만들고, 의결될 법안(수정안, 대안)을 만드는 일 등과 함께, 예산·결산 심사 시에도 각 소관 사업에서 문제가 될 만한 꼈지를 잡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상임위원회 행정실로 접수되는 각 의원실의 질의를 확인·정리하여

심사를 위한 회의자료를 만들며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일 등입니다.

회의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정부 부처나 이해관계인들이 계속 연락을 하고, 전문위원실과 의원실에서도 끊임없이 지시가 전달되면서 회의자료를 계속 수정하고 완료해야 때문에 입법조사관은 긴장 속에서 숨가쁘게 살아야 합니다. 그 가운데 숨 좀 쉬고 싶을 때, 사무실이 있는 국회 본청 지하에 감실이 있는 경당이 있다는 사실이 제게 얼마나 든든한 베풀목이 되는지 모릅니다. 지난 8월에는 결산 심사와 법안 심사 일정이 같이 있어서 정신없이 바

국회 다산회 성가대 특송



뺐는데, 오후에 살짝 지하 경당으로 가서 “예수님!”하고는 그대로 잠깐 졸았던 적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저의 모습도 품어 주시는 따뜻한 위로이자 힘입니다.

특히 제게 국회 경당은 제 딸이 유아세례를 받은 곳이며, 어릴 적 딸이 많이 아팠을 때 많은 분들의 기도로 건강을 회복하게 된 체험을 준 소중한 곳입니다. 게다가 좋은 분(구슬이 베로니카 자매님)의 인도로, 같은 직장을 다니며 같이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의 마음으로 직원들이 한 달에 한번 ‘자녀를 위한 기도 모임’을 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저희 국회 가톨릭 모임

‘다산회’ 소속 성가대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특송도 봉헌합니다. 직장인으로서의 저, 엄마로서의 제가 신앙인으로서의 저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서로를 보듬어 주는 소중한 체험을, 국회 경당은 제게 선물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단다, 두려움에 떨지 마라.’

아들이 주일학교 초등부 시절 배워 와서도 좋아하게 된 생활성가 ‘임마누엘’은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시고, 지친 저희의 어려움을 모두 알고 계시는 주님의 절절한 위로와 공감, 사랑을 느끼게 합니다. 오늘도 국회에서는 의원들이, 보좌진들이, 국회 직원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갈등도 있고, 때때로 지치고 힘들지만, 경당에 예수님이 뵈리 가서 속삭여 보곤 합니다. 임마누엘, 나의 예수님. +



폭풍 같은 은총

장선임 루시아_성동구청 교우회

“빠~앙! 빵! K 중학교에 폭발물이 설치되었다.” 재난 안전 통신망이 울린다. 출동이다. 폭발물 협박 메일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거나, 화재 등 긴급한 재난 현장이 발생하면 나는 곧바로 현장으로 향한다. 이것이 나의 일상이다. 나는 24시간 근무 체제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맡고 있다. 언제나 긴장 속에 있고,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많다. 그래서 이 일은 고되고 두렵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성동구청 가톨릭 교우회 회장으로서 신앙의 길을 걷고 있다.

2025년 9월 6일 토요일, 성동구청 3층 대강당에서 열린 「서울시 가톨릭 교우협의회 신앙대회」는 내게 잊을 수 없는 은총의 시간이었다. 대강당 안에는 보랏빛 은총의 빛이 가득 내려앉았고, 마치 천사들이 함께하는 듯한 평화로움이 감돌았다. 300명이 넘는 교우들이 한자리에 모였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느님을 만났다. 신앙대회를 준비한 1년 여의 시간은 결코 쉽지 않았다. 거의 매주 참여한 성령 세미나에서 함께 기도하며 대회의 성공을 기원했다. 나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신앙대회”, “참여한 이들이 행복한 신앙대회”를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대회 37일을 앞두고는 서울시 가톨릭 교우협의회 임원들에게 참여를



서울시교우협의회 신앙대회 성동구청 단체사진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참가자 기념품과 식사, 간식, 커피, 경품 그리고 미사, 강연, 공연까지 세심하게 준비했다. 강의는 홍성남 신부님께 부탁드렸고, 구요비 읍 주교님의 집전 미사에서는 “참가자들이 하느님을 놓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주시기를 김명중 시문지도신부님께 부탁드렸다.

대회 3주 전부터는 일주일에 네 번 미사에 참례하고, 두 번의 성령 세미나에 참여하며 박차를 가했다. 성동구청 가톨릭 교우회는 기념품을 포장하며 서로를 격려하였고, 행사 리허설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



꾸르실료 파견식

꾸르실료 수료



다. 그 결과, 대회 당일에는 많은 교우들이 함께했고, 예상치 못한 기부 까지 더해져 더욱 풍성한 행사가 되었다.

신앙대회가 끝난 후, 나는 꾸르실료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참석하면 더 큰 은총을 받는다’는 말을 들었지만, 현실의 여건은 쉽지 않았다. 고민 끝에 참석한 꾸르실료는 나에게 또 한 번 폭풍 같은 은총을 체험할 수 있게 해 주었다. 꾸르실료는 내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고, 하느님께서는 이미 놀라운 계획을 세워두고 계셨다. 그곳에서 나는 ‘진정한 봉사’가 무엇인지, ‘회심’이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느님 나라가 얼마나 간절히 준비해야 갈 수 있는지 깨달았다. 선배들의 따뜻한 배려와 기도, 가족의 깊은 사랑을 새삼 느끼며, 나는 감동에 눈물을 참지 못 한 채 오열했다. “아버지,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서울시 가톨릭 교우협의회 신앙대회 개최와 꾸르실료를 함께 경험한 그 시기는 정말로 폭풍처럼 몰아치는 은총의 시간이었다. 그 은총 속에서 나는 하느님께 흠뻑 잠겼고, 지금도 그 물결 안에 살고 있다. 고통스러운 순간조차 주님께 맡겨보면 마음이 평안해진다. 신앙대회 이후 11월 모임에는 30여 명의 성동구청 가톨릭 교우회 회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 또한 하느님께서 주신 큰 은총일 것이다. 앞으로도 나는 하느님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한다. 이 일이 있기까지 직장사목팀 지도 신부님, 매일 기도해 주었던 협조자들, 꾸르실료 선배 스따, 성동구청 가톨릭 교우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폭풍처럼 밀려온 은총 속에서, 나는 비로소 아버지께 돌아왔다. +

너희도 분부를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고 말하여라(루카 17,10)

김종호 야고보 주임신부_한남동 성당



‘월급 노예’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표현입니다. 저 말에는 매월 입금되는 급여에 의지 하며 사는 애환과 조직의 부속품처럼 살아가는 것 같다는 자조 섞인 푸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 표현이 과하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유는 실제 노예의 삶은 상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고통스러웠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로마 제국이 팽창하

던 시기, 로마에게 패하여 잡혀 오는 타민족 사람들이 로마에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노예 인플레이션’이라고 일컫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충격적일 정도로 싼 가격에 팔리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어떤 이들은 검투사로 팔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글래디에이터’란 영화로 보았듯 그들은 로마시민의 즐거움을 위해 죽을 때까지 싸워야 했지요. 주님 오시기 전 73년에 노예 검투사들이 일으킨 ‘스파르타쿠스의 난’은 실제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로 ‘월급 노예’라는 표현은 지금의 나를 더 비참하게 내리고 예전의 진짜 노예의 삶은 상대적으로 올리는 왜곡을 일으킵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월급에 의지하여 사는 삶이라 해도 과거의 노예에 비하면 우리의 생활 수준은 엄청나게 높은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예수님께서 노예, 또는 종이라는 단어의 올바른 용법을 알려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고 나서 “저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라고 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종과 주인이라는 지위의 차이를 나와 하느님의 관계로 변형시켜 줍니다. 그렇게 나와 하느님의 관계로 확장되면서 놀라운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 깨달음은 하느님께 속한다는 것이 완전히 다른 차원이고 오히려 하느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나의 삶은 더 완전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이지요.

직장에 다니는 우리 신자분들도 하느님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쏟아 보면 좋겠습니다. 노예로서 또 종으로서 세상에 속박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아들 딸로서 그분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사랑하는 자유를 누리는 것. 기꺼이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

겨자씨의 반전

하느님이 사랑하시는 ‘비율의 뒤집기’

강혁준 아우구스티노 신부_사목국 직장사목팀



겨자씨가 작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것을 보았을 때 아주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학생 시절, 우연히 어느 신부님께서 보여주신 겨자씨의 실제 크기는 상상조차 못 할 만큼 미세했습니다. 작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볼펜 심보다도 작은 겨자씨를 보면 “어찌 이렇게까지 작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가 싹을 틔우면 키가 3미터를 넘기도 하고, 정원 작물 중에서도 으뜸가는 크기 가운데 하나가 된다 하니, 참으로 ‘반전’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눈에 잘 띄지 않을 정도로 작은 일이라도 하느님께서 개입하시면 놀라운 일이 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의 비유가 가장 적합하다고 여기신 듯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르코 복음 12장 41절에서 렙톤 두닢을 봉헌한 가난한 과부의 작은 봉헌을 가장 귀하게 여겨 주셨습니다. 옆에 있던 이들이 자기 가진 것의 ‘일부’를 드렸다면, 그 과부는 자기 가진 ‘전부’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세상 기준에서 ‘작다’는 것이, 하느님 앞에서는 오히려 ‘크다’로 뒤집

하는 반전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세상 상식과 어긋나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강력하고 힘 있는 방법이 매력적이고 효율적이라고 말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작고 소박하며 보잘것 없어 보이는 것들 안에서 당신의 전능을 가장 가깝게 드러내십니다. 성령으로 임태되어 오신 예수님이 따뜻한 왕궁이 아니라, 추위와 냄

새로 불편한 마구간에서 시작하셨고, 마침내 십자가라는 가장 낯은 자리에서 마지막을 맞으셨습니다. 복음 전체를 돌아보아도, 하느님은 인간의 고통을 즐기시는 분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그럼에도 자신만만한 마음보다 두렵고 가냘픈 마음 곁에 더 가까이 계시는 까닭은, 바로 그 빈 자리 – 겸손 – 안에 당신이 들어오실 공간이 생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신앙 없는

큰사랑봉사회 회원들 피정 후



삶은 어려움을 오로지 자기 체력과 지구력으로 밀어붙이는 기술에 의지합니다. 성공하면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것은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의 끝까지가 곧 한계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인간은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전해진 신앙의 지혜로 그 한계를 초월하는 길을 배웠습니다. 약점을 넘어서는 힘 – 바로 하느님께 이끌림으로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어느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자각이 찾아와도, 하느님께 이끌린 ‘아

무것도 아님’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총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매력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움직이는 기술’을 배울 수는 없지만, 신앙의 깨우침을 통해 하느님께서 오실 수 있는 내적 환경을 마련할 수는 있습니다. 그 환경의 이름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무는 이들에게 하느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시간과 방법으로 오시고, 함께하십니다. 겸손한 도구로 준비된 ‘나’ – 성령께서 언제든지 건드리실 수 있는 ‘나’가 됩니다.

소방관 세션 중 복사





강동소방서 2층 벽 그림

양자물리학에서 즐겨 비유하는 ‘나비 효과’가 있습니다. 중국의 어느 곳에서 한 나비의 날갯짓이 파동을 증폭시켜 먼 거리의 도시에서 태풍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어디엔가 떨어진 낙엽 하나도 우주를 흔들 수 있다고 말하곤 합니다. 아무도 모르는 진실한 기도, 어려운 이웃에게 이웃이 되어 주려는 마음, 알려지지 않은 조그만 선행들, 드러나지 않는 작은 사랑의 마음들…. 하느님께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사용하셔서 우리 삶과 이 세상에 어떤 나비효과를 일으키실지, 그분의 전능을 믿는 우리는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하느님은 이런 ‘비율의 반전’을 참 좋아하시는 분 같습니다. 시간과 공간, 시작과 끝 – 모든 것은 하느님 안에서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조주가 만드신 것에 창조주가 간히실리 없습니다. 그래서 성녀 대 테레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세상의 기쁨도 슬픔도 다 지나가지만, 항상 계시는 분은 하느님뿐이다.” 시간이 멈추어도, 세상의 흐름이 정지해도, 그분은 여전히 존재하십니다.

니다.

하반기에도 9월부터 소방기관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위한 워크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봉사자들과 함께, 같은 지향으로 기도를 이어갑니다.

“주님, 불안과 위험 속에서 이웃을 지키는 소방 공직자들과 그 가족을 굽어보소서. 그들이 직무로 행하는 선행과 봉사가, 단지 ‘견뎌야 하는 고달픔’으로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당신의 전능하심을 믿는 평화와 당신 사랑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매일 새롭게 이어지게 하소서. 우리의 작은 기도와 숨은 선행이 겨자씨처럼 자라, 지친 이들에게 시원한 그늘이 되게 하시며, 도움이 가장 절실한 이들부터 먼저 축복하소서.” +

요한 복음을 시작하며

편집부 _ 「말씀새기기」(김영남 신부 저) 책에서 발췌

저자

‘요한 복음서’는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사도 요한으로부터 유래한다”고 말할 수 있다. 요한 21,24에는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예수에 관한 일들을 ‘증언하고 기록한 사람’”이라고 적혀 있다.

복음서 전반을 살펴보면 예수는 열두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대하셨다. 예수는 야이로의 딸을 부활시킬 때와, 거룩한 변모 때 그리고 겟세마니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이 제자들만을 데리고 가셨다.

이 셋 중 야고보 사도는 44년에 헤로데 아그립파에 의해 순교했고, 베드로는 요한 13, 23과 20, 2에서 애(愛)제자와 구별

되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애(愛)제자’는 바로 이 사도 요한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는 최후만찬 때 예수의 품에 기대었던 제자이다(요한 13,23). 그는 예수의 십자가 밑에 서 있었는데, 돌아가시는 예수께서 당신의 어머니를 이 제자에게 맡기고 제자는 당신 어머니에게 맡길 만큼 특별히 신뢰했던 제자이다(요한 19,2). 그리고 부활날 아침에 그는 베드로와 함께 빈 무덤으로 달려가 ‘보고 밟었다’(요한 20,8)

직접 요한 사도가 썼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요한 사도의 신앙적 분위기에 깊이 젖어있는 공동체로부터 유래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여러 단계를 거쳐서 현재의 요한 복음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독자층 · 집필 배경

‘회당 추방’이라는 표현이 요한 복음서에도 언급된(요한 9,22; 12,42; 16,2) 것으로 보아, 요한 복음서의 공동체는 유다인들이 그리스도 신자들을 이단자로 몰아세우는 것을 이미 체험하였다고 여겨진다(기원 후 70년).

그리고 요한 복음서 서문(prologue)에 있는 ‘말씀(Logos)찬가’ 등을 보면 요한 복음서의 공동체는 ‘그리스 철학’, 특히 ‘알렉산드리아의 필로’의 해석을 거친 그리스 철학의 영향도 깊이 받은 것 같다. 요한의 공동체는 또한 영지주의(靈智主義)의 유혹을 강하게 받고 있었던 것 같다. 이 사조는 근본적으로 세상과 육체를 천상과 영혼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라고 보는 이원론에 바탕을 두면서 이 사조에 가입된 사람들만이 가지게 되는 영지(靈智, gnosis)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공통점이 있다.

요한 복음서 저자는 복음서를 통해 이



피에로 디 코시모, 〈성 요한 복음사기〉, 하와이주, 호놀룰루 아카데미 오브 아트
(조지 퍼거슨, 『르네상스 미술로 읽는 상징과 표징』 중에서).

런 영지주의적 경향을 거슬러 싸운다. 요한 복음서에서도 빛과 어두움, 거짓과 진실, 육과 영 등 이원론적 개념이 있지만, 영지주의와는 달리 육과 세상을 근본적으로는 긍정적으로 본다. 세상과 육은 그 자체로서 악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악하게 된 것이다.

요한 복음서의 가장 큰 배경은 무엇보다도 유다교(유다 사상)이다. 이 복음서에

는 구약성서의 주요 주제들(출애굽, 파스카, 어린양, 만나, 물, 포도원 등)을 사용한다.

집필 목적

요한 복음서의 집필 목적은 다음의 20,30–31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 “이 런 일들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이 예수 그 리스도요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한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 개념은 ‘믿음’과 ‘생명’이다. 예수를 진정으로 그리스도요 하느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사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부분적으로는 이미 이 세상에 서, 궁극적으로는 세말(世末)에 갖게 된다는 것이 요한 복음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골자이다.

집필 연대와 집필 장소

요한 복음서는 1세기 말(90년–100년)경에 쓰여졌다고 추정된다. 즉 복음서 중에 가장 늦게 쓰여졌다. 130년 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되는 파피루스 52호가 이집트에서 발견되었는데, 130년경에 이집트에 까지 요한 복음이 보급된 것으로 보아, 요한 복음은 늦어도 100년 경에는 저술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세기 중엽에 쓰여진 영지주의적 문헌이나 교부들의 문헌에서도 요한 복음서의 본문이 인용되거나 언급된다. 집필 장소로서 가장 유력한 후보지는 ‘에페소’이다. 이 견해는 사도 요한에 관한 교회의 오래된 전승과도 합치하고, 위에서 밀한 여 러 시대적 배경과도 부합한다. 사도행전은 에페소에 큰 유다인들의 공동체(참조 : 사도 18,19,24–28 ; 19,8–20)와 세례자 요한의 추종자들(참조 : 사도 17,1–7)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공관 복음서(마르코, 마태오, 루카복음서)의 비교

요한 복음서는 나머지 다른 세 복음서와 비교해 상당히 차이가 있다.

① 공생활 기간의 차이

공관 복음서에서 예수는 갈릴래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단 한번 올라가셔서 거기서 수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비하여, 요한 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적어도 세 번 이상 과월절을 지내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의 공생활이 2-3년이 걸렸다는 것을 뜻하며 요한 복음서의 기록이 더 역사적 사실에 부합한다. 공관 복음서의 기록은 이 점에 있어서 신학적 의도를 가진 것이다.

② 요한 복음서에서는 기적(이적)을 표징이라고 말한다.

③ 공관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하느님의 나라’에 관하여 선포하셨는데, 요한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신 당신의 자기계시가 많이 나온다. 이 예수의 자기계시의 말씀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에 나오는 “나는 … 이다”라는 말씀들이다 : 예컨대 “나는 생

명의 뺑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이 드나드는 문이다.”, “나는 착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표현들은 예수가 인류를 위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표현해 주는 상징어들이다.

전체적 특성

요한 복음서는 흔히 영성적(靈城的) 복음서라고 한다. 요한 복음서의 글은 예수의 사건이 지난 후 약 6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느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며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과 행적들 속에서 일반 기도 생활 또는 전례를 통하여 깊이 묵상한 후에나 나올 수 있는 글들이다.

이 복음서는 성령께서 오시면 온전한 진리로 이끄시리라는 요한 16,13의 말씀처럼 성령의 이끄심 속에 이루어졌던 긴 묵상의 결과이기도 하다. 

골배마실 성지

윤정민 마틸다

은이성지에서 차로 약 10분 거리에 위치한 골배마실 성지는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가 소년 시절을 보낸 교우촌입니다. 1827년경, 일곱 살이던 김대건 신부는 조부 김택현과 가족들과 함께 천주교 박해를 피해 충청도 솔뫼를 떠나 용인으로 피신하였고, 신자들이 은신하던 골배마실에 정착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신앙생활을 이어가며 교리를 배우고 신심을 키웠습니다.

1845년 사제 서품을 받은 뒤에는 어머니 고(高) 우르술라와 첫 재회를 하고, 몇 달간 머물며 사목활동을 펼쳤습니다. 또한 1839년 기해박해 당시 부친 김제준 이냐시오 성인이 관현에게 체포된 장소이기도 하며, 훗날 미리내로 향하던 김 신부의 유해가 어머니 우르술라에게 마지막 작별

인사를 전한 곳으로 전해집니다.

골배마실은 1961년 성지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김대건 신부의 생가터로 구전되어 왔습니다. 주민들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곳에서 기도하고 봉헌하며 신앙을 이어갔습니다. 1961년 양지 본당의 정원진 루카 신부가 우물터와 생활 도구를 발굴하면서 성지 조성을 시작했고, 1997년에는 새롭게 단장해 오늘날 김대건 신부의 생가터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성지에는 김대건 신부의 동상과 야외 제대, 그리고 생가터임을 알리는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골배마실’은 김대건 신부의 가족이 거주하던 집이 ‘배마실’(현 양지성당 소재지)



로 이어지는 골짜기에 위치해 붙여진 이름입니다. 이 '배마실'은 깊은 산골에 뱀이 많아 '뱀마을' 혹은 '배마실'이라 불렸습니다. 현재 양지리조트 안에 있으며, 양지산

장을 지나 우측에 위치합니다. 평상시에는 보존을 위해 출입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은이성지 사무실에 문의하고 방문할 수 있습니다. +



지금도 가슴을 뛰게 만드는 산티아고 도보순례 ⑧ 마지막

심연선 소화데레사_성지순례 전문 여행 가이드

오세브레이로 성당에서 받은 노란화살 표가 새겨진 조약돌을 조심스럽게 챙기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안개 가득한 숲길을 걸으니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게 걷다가 산로케 언덕에 도착하고 그곳에서 유명한 순례자모형 동상을 만납니다. 1993년에 세워진 갈리시아의 조각가 호세 마리아 야쿠냐 (Jose Maria Acuna)의 작품인데 바람을 뚫고 지나가는 순례자의 모습이 오늘 분위기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고도가 조금씩 낮아지면서 안개구름이 걷히고 목가적인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오늘 5키로 남았는데 조금 쉬자 하면서 바에 앉아 신발을 벗고 고생한 발에게 햇볕을 쬐여줍니다. 대모님께 받은 낙타양말이 이제 운명을 다한 것 같습니다. 여러 번 꿰매 신었던

데 이제는 놓아주어야 할 것 같은 모양입니다. 한국 순례자들 사이에서 순례길 걷기기에 아주 좋다는 유명한 양말 한 켤레와 낙타양말 한 켤레로 한 달 넘게 버티며 약 700키로를 걸었습니다.

오늘은 트리아카스텔라(Triacastela)라는 곳에 머무릅니다. 방금 보고 왔던 방목장에서 나오는 갖가지 치즈들을 이곳 시내에 있는 치즈판매점에서 맛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례자 도반인 다니엘라 언니가 치즈메이커여서 순례길 동안 여러 가지 맛좋은 치즈들을 맛있는 와인과 함께 접할 수 있었습니다. 입맛이 서로 비슷해서 길을 걷는 데 즐거움이 더했습니다.

산티아고까지는 이제 약 120km가 남



산 로케 순례자 동상



오세브레이로 성당의 선물



매일 치즈 와인 파티

았습니다. 이 구간은 이미 5번을 순례자들과 함께 걸었던 길이어서 이제 다 왔구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알려진 산티아고 도보순례 체험

판이 사리아(Sarria)에서부터 시작하는, 5일이 소요되는 약 120km 코스입니다. 이 길을 걸으면 120km를 걸었다는 증명서도 줍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간내기가 여의

치 않은 사람들이 이 구간만을 걷습니다.
길 위의 순례자 수가 혹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비가 많이 오는 지역으로 유명합니다. 축축한 이끼가 가득한 돌담과 늘 젖어있는 것 같은 길, 흐린 하늘과 푸른 하늘이 번갈아가며 보여 지는 곳입니다. 이제껏 자연을 많이 보고 걸어왔다면 이제부터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하루에 한번 꼴로 ‘너네 오세브레이로에서 기도했지?’라고 알아보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을 전체 촬영해준 순례자를 만나서 영상을 건네받기도 했습니다.

세상에 어쩜 이런 길이 있을까요? ‘산티아고’라는 목적지를 따라서 저마다 다른 동기로 걷긴 하지만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템플 기사단의 후예라는 사람도 만나고, 우연히 들른 어느 점심식당에서는 갈리시아 스타일의 이모카세 점심식사도 하고, 사진 찍는 데 삼매경이 되어서 보조가방을 놓고 온



마지막구간의 숲





산티아고 대성당

것을 알게 되어 뒤돌아 뛰어가니 아까 사진찍을 때부터 옆에 있었다고 가방을 챙겨가지고 내려오는 사람을 만나질 않나, 바에서 쉬는데 갑자기 인생에 대한 신앙고백을 하는 사람을 만나지를 않나… 마지막이 되니 모두들 그 한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 다니엘라 언니와 저는 새벽 어두운 가운데 길을 나섰습니다. 생각보다 숲이 너무 어두워 겁을 잔뜩 집어먹고는 정신없이 내달려 생각보다 일찍 산티아고 대성당에 다다랐습니다.

갑자기 울음이 터진 다니엘라 언니… 저는 자주 보았던 대성당이어서 그 감격이 남들과 같지는 않았지만 다 걸어냈다는 성취감과 안도감이 그 무엇과도 비교를 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함께 걸었는데 도중에 속도를 늦춘 다른 순례자들을 이틀 뒤에 만나게 되었습니다. 빼어야 집에 모여 나눔을 하는데 또 눈물파티… 이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 주신 것이 저에게 가장 큰 선물이 아니었을까 생각이듭니다.

다니엘라 언니와 땅끝마을 피스떼라 (Fisterra)를 다녀와서 마지막 밤을 보내고 아침에 떠나기 전에 새벽의 산티아고 대성당을 찾았습니다. 힘든 마음을 갖고 인솔을 하던 2015년의 어느 여름에, 주체할 수 없이 쏟아지던 눈물로 만난 야고보사



피스테라(땅끝마을)

도의 유해… 800km를 다 걷고 봄니 조금 더 단단해진 제 자신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길을 떠난 목적은 참회였습니다. 길을 걸으며 묵주알을 굴리며 미사를 봉헌하며 참회를 하였습니다. 순례 마지막

에 모아진 단 한가지의 마음은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 안에 계셨고, 계시고, 계실 것입니다. +

곁에 함께 있어 주는 것의 힘

장경민 시메온 신부_임상사목교육센터 부센터장

병원에서 사목을 하시는 신부님, 수녀님, 평신도분들(이하 “원목자”라 통칭하겠습니다)께 임상사목 교육을 해드리며, 교육 초반부에 종종 말씀 드리게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Doing vs Being”

우리 천주교 신앙인들은 마치 자신의 DNA에 ‘이타심’이 새겨져 있는 것처럼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보면 언제나 마음이 쓰이지요. 그래서 돋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겨나기도 합니다. 바로 이 마음 때문에 원목자들이 환자 방문을 할 때에 부담감을 크게 느끼곤 합니다. ‘내가 이 환자분께 무슨 말을 해주면 좋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환자분께 도움이 될까?’ 같은 생각들이 먼저 떠오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사실 환자분들께는 “무엇을 해주는 것”(Doing)보다 “곁에 있어 주는 것”(Being)이 훨씬 가치가 있고 도움이 됩니다.

환자분들이 신체적으로 겪는 질환은 의료진이 이미 돌봐주고 있지만, 그분들이 겪는 심리적, 정서적, 영적 고통은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원목자가 방문하여 곁에 머물러주는 것만으로



도 많은 환자분들이 반가워하며 위안을 받기도 하고, 심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원목자에게 이야기하며 해소하기도 합니다.

육체적 고통이든 영적 고통이든,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곁에 머물러주는 것이 얼마나 ‘치유적인 일’인지를 크게 느낄 수 있었던 사례가 예전 원목 소임 중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함께 근무하는 후배 원목 신부님(이하 “A 신부님”)이 환자방문을 가서는 몇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퇴근시간이 다 되어서야 돌아온 A 신부님은 별말 없이 그저 환자방문을 계속 하다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해서, 저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함께 퇴근했습니다. 다음 날은 저 혼자 근무하게 된 날이었는데, 항암 치료를 받기 위해 병원에 자주 입원하시는 어느 자매님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부인과(婦人科) 암을 앓고 계신 그 자매님은 큰 통증 때문에 늘 괴로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제가 방문을 하자마자 그 자매님은 A 신부님을 찾으며, “신부님, A 신부님 나오셨어요? 뵐 수 있나요?”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휴무일이라 안 나오셨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셔요?”하고 제가 여쭤보니, 자매님이 어제 있었던 일을 들려주었습니다.

어제 A 신부님이 이 자매님을 방문했었는데, 마침 그 때 자매님의 통증이 너무 심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답니다. A 신부님이 오신 것을 보고 인사는 했지만, 고통이 너무 커서 자기도 모르게 “신부님, 제가 지금 너무 아파요. 제 손 좀 잡아 주세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 같아요”라고 청했답니다. A 신부님은 알겠다며 자매님의 손을 잡고 병상 옆 의자에 앉았고, 자매님은 진통제를 맞고도 가라앉지 않는 통증을 눈을 감고 견뎌내려 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매님이 잠이 들어버린 것입니다. 문득 잠이 깨어 보니 시간은 어느새 두 시간 이상 흘러 있었고, 옆을 보니 A 신부님이 아직도 자매님의 손을 잡은 채 묵주기도를 하고 있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오랜만에 고통 없이 두 시간 이상을 편안하게 잤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자매님이 잠에서 깨자 A 신부님은 자매님과 몇 마디 대화를 나눈 후 기도를 하고 내려가셨는데, 자매님은 신부님이 자기 손을 잡고 두 시간 넘게 곁을 지켜준 사실, 그리고 자신이 정말 오랜만에 잠을 푹 잘 수 있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해서 신부님께 제대로 인사를 드리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도 마음에 감동을 받았고, 또한 A 신부님이 고맙고 존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퇴근하여 A 신부님을 만나 어

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A 신부님은 그 역시 대수롭지 않은 일인 듯 대답하며, 그저 고통받는 분 곁에 머물러 드리는 것이 그분께 힘이 된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해드리고 싶었다는 정도로만 대답을 했습니다.

임상사목교육에서 영적돌봄을 위해 배우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가장 첫 번째는 고통을 겪는 사람 곁에 함께 있어 주는 것, 곧 ‘연민’의 마음으로 곁에 머물러주는 게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비단 병원사목 현장 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형태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요. 그리고 멀리서 찾지 않더라도, 여러분 가까이 지인분들 중에도 여러 형태의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을 한두 분 쯤은 쉽게 떠올릴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을 ‘어떻게 도와 줄까?’ ‘어떻게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를 먼저 고민하지 마시고, 그저 가까이 다가가셔서 곁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을 잘 경청해 주시기만 해도 됩니다. 이것이 바로 ‘돌봄’의 시작이며,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웃 사랑’의 첫 결음이 될 것입니다. +



임상사목교육센터
문의 ☎ 02-727-2434

들키지 않은 죄인

송정섭 시몬 신부_사회교정사목위원회

모든 것을 자기중심으로만 보고 이해하려는 요즘 세상에서, 담장 안의 형제자매님들을 만나는 일은 제가 저 자신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큰 은총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한 번은 구치소 미사에서 세례례를 하

는데 형제님들의 발이 너무나 깨끗했던 점이 기억납니다. 미사 전에 수용 거실에서 발을 얼마나 닦고 나오셨는지, 발을 만지는 순간 뾰드득거렸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세례례 전 주부터 비신자 형제님들도 “정말로 신부님이 직접 발을 닦으시냐”며 봉사자들에게 계속 물어보셨답니다. 사실 저는 천주교 예식에 대한 존중 없이



가볍게 참여하는 분이 많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단정한 마음과 모습으로, 한편으로는 발을 닦아주는 신부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참여하는 형제님들의 모습을 보며, 제 안에도 여전히 타인에 대한 선입견이 많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담장 안의 형제자매님들 중에는 정신질환이나 장애가 있는 수용자와 같은 사동, 같은 수용 거실에서 그들을 보살피고 도와주며 지내는 경우가 생깁니다. 너무 힘들다면서도 자기가 아니면 누가 그 사람 옆에서 챙겨주겠나 싶어서 속죄와 봉사의 마음으로 묵묵히 참고 지냅니다. 어떤 분은 한글을 몰라서 저에게 편지도 못 쓰는 불우수용자를 위해, 옆에서 대신 써주고 자기 우표까지 붙여주기도 합니다. 또한, 최고수(사형수) 형제님들 중에는 봉사자의 권유에 따라 하루 100단씩 묵주기도를 하는 분, 아침저녁으로 성무일도를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만날 때마다 깊은 복음 묵상을 나누어주는 분도 있습니다.



이러한 형제자매님들을 보면, 바쁘다는 핑계로 소홀했던 저의 이웃사랑과 기도 생활을 돌아보게 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종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방문하신 곳이 로마의 한 교도소였는데, 수용자들을 만나고 나오셔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왜 내가 아니고 저들이 갇혀 있는가?” 생각해보면 저 역시 세상의 법을 어기지 않았을 뿐, 사랑과 선행을 실천해야 한다는 하느님의 법에서는 부족함이 많습니다. 여전히 편견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을 직접 죽이지 않았을 뿐,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의 영혼에 상처를 줄 때도 많습니다. 저 역시 하느님 앞에서는 “들키지 않은 죄인”일 뿐임을 깨닫습니다. +

금융감독원에서 만나는 작은 성당, 가톨릭교우회 이야기

전성우 바오로_금융감독원 교우회

찬미예수님~!

“금융감독원 가톨릭교우회”는 말 그대로 금융감독원에서 일하는 가톨릭 신앙인들의 따뜻한 모임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시장의 질서를 지키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며, 금융기관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돋는 곳이죠. 그런데 솔직히… 그런 일 하다 보면 꽤 빠섭니다. 민감한 사건, 급박한 현안, 까다로운 민원 등 하루에도 수십 번씩 정신이 쏙 빠지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우회는 생각했습니다.
“회사 안에서도 마음의 숨 쉴 구멍이 필요하다!”

그 결과 만들어진 게 바로 월례미사와 아침 말씀 나눔이에요.

월례미사는 매달 마지막 주 목요일에 봉헌됩니다. 미사 후엔 신부님과 점심도 함께하고, 자녀 이야기, 돈 걱정(!), 취미, 인생토크까지? 자유로운 수다 타임이 이어집니다. 평소엔 인사도 못 하던 동료들이 미사 한 번 함께 드리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가까워져요. 미사 전엔 근심 가득 하던 얼굴이, 끝나고 나면 한결 평온해진 표정으로 돌아가는 걸 보면 ‘성령의 힘’이 진짜 실감납니다.

또 매일 아침, 단체방에는 오늘의 복음 말씀 한 줄이 올라옵니다.
커피 한 잔 마시며 그 말씀을 읽는 순

간, “아, 오늘도 괜찮은 하루가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요. 하지만, 그게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신입직원이 매년 50~100명씩 들어오지만, 자기 신앙을 드러내거나 교우회 활동에 참여하는 건 아직 쉽지 않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적극 홍보하지 않아도 교우회는 조금씩 자라납니다. 빈자리가 생기면 어느새 누군가가 채우고, 누군가 떠나면 또 다른 이가 찾아옵니다.

이건 아마, 주님이 직접 이끄시는 작은

기적 아닐까요?

결국, 우리 몸 하나하나가 작은 성전이고, 그 성전이 모이면 더 큰 성전이 되는 법.

혹시 당신의 직장엔 아직 교우회가 없나요?

그렇다면 바로 당신이 그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들어만 놓으세요! 나머지는 주님이 채워주실 겁니다. ☤

인재개발원_금융감독원 교우회 미사



나의 일터, 나의 신앙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루카 12, 40)

김종호 야고보 주임신부_한남동 성당

우리 신앙인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재림은 신학적으로 많은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건 심판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살아온 삶으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죽음, 심판, 천국, 지옥을 다루는 우리 교리를 사말(四末) 교리라 합니다. 이 교리는 우리 천주교의 내세관을 이룹니다.

사말 교리는 분명 두려움을 일으킵니다. 죽음 이후 하느님 앞에서 내 모든 삶이 드러난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겠지요.

사말 교리를 설명하는 사제로서 늘 주의하는 것은 이 사말 교리가 신앙인들의 삶을 움츠리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누군가에게는 고통이고 두려움일 수 있겠지만 그분을 늘 보고 싶어하고 사랑하던 이에게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매 순간의 삶에 예수님을 초대하던 사람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오히려 손꼽아 기다려온 순간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심판은 나의 삶을 통해 하느님께서 베푸신 은총과 기적을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아기가 성장하는 모습을 기록한 채널을 많이 봅니다. 부모가 촬영한 영상에는 순수하고 귀여운 아기들의 모습이 담겨 있어 그 가정을 응원하며 즐겁게 보게 됩니다. 영상 중에는 퇴근하는 아빠를 맞이하는 아기들의 반응을 기록한 영상들이 있습니다. 아기는 아빠가 문 앞에 도착하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관문 번호키를 누르는 소리가 나면 문을 향해 돌진합니다. 엉금엉금 기어가거나 뛰어서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는 “끼야” 소리는 아기가 아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느끼게 해 줍니다. 문이 열리고 아빠가 들어오면 아기는 경충경충 몸을 들썩이며 아빠를 맞이합니다. 이내 아

빠 품에 안긴 아기는 아빠와 행복한 만남을 갖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재림을 아빠를 기다리는 아기의 모습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아빠를 만나는 것은 아기에게도 아빠에게도 기쁨이며 사는 이유가 되고 기다림에 대한 보상 자체가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기쁨이 될 것입니다. 기다렸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며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재림이 두려운 이는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삶으로 초대하지 않은 사람이 되겠지요. +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그 모든 찬양에 찬양을 더하오리다.

(시편 71,14)

손자민 소화데레사 단장_AESTUS 직장인 성가단

조촐한 우리 봄을 악기 삼아 맑고 고운 영혼의 성가를 아름다운 가락으로 주님 대전에 바치옵니다. 소리로는 부족하여도 우리 정성 굽어보사 즐겨 받아주시옵고 마디마디 화음 이루어 노래할 때…

성가대를 위한 기도의 일부분으로, 연습 전 시작 기도로 바치는 기도입니다.

저는 직장사목팀 AESTUS 성가단으로 매주 이 기도를 바치고 있습니다. 라틴어 AESTUS는 열정(영어: Passion)을 뜻합니다. AESTUS 성가단은 직장사목팀의 세례미사, 견진미사, 송년미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매년 서울시교우협의회 신앙대회 미사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AESTUS 성가단은 대부분 저녁 식사도 거르고 열정이란 이름답게 성가를 부르러 모입니다.

성가단에 관한 이야기를 쓰고자 ‘나는 왜 성가대를 할까.’에 관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틀에박힌 “하루 종일 쌓였던 일터의 무게가 사라집니다.”라는 기계식 멘트보다는, 그냥 “성가대가 좋습니다.”라는 말이 더 진심에 가깝습니다. 함께 부르는 화음이 잘 맞지 않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부르는 성가가 좋아서,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좋아서. 저는 그냥 성가대를 좋아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첫 단추부터 항상 성가와 함께였습니다. 한글도 모르던 때, 부모님 손잡고 함께한 미사와 피정에서 성가 노래 선율을 먼저 익혔습니다. 초등학교 첫영성체 교육 때에도 주기도문을 외지는 못해도 어린이 성가 노래의 가사로는 기억해서, 노래를 속으로 흥얼거리

9회 정기연주회 모습



며 기도문을 외웠던 추억이 있습니다.

10월 셋째 주 AESTUS 성가단의 정기 연주회를 잘 마쳤습니다. 정말 ‘10월 어느 멋진’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번 제9회 정기 연주회의 주제는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그 모든 찬양에 찬양을 더하오리다”였습니다. 모태신앙으로 빼속부터 가톨릭 신자이지만 ‘찬양’, ‘찬양하오리다’ 막상 무엇이 찬양하는 행위인지, 잘 모릅니다. 그저 내가 온 마음을 다해 부르는 노래가,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부르는 노래가 전달된다면 그것이 바로 찬양이 아닌가 합니다. 이

9회 정기연주회 단체사진



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내고 버텨 온 모든 시간의 ‘기도’였음을.

우리 성가단은 본당 소속의 성가대가 아니어서, 거주 지역도 다르고 각기 다른 직장과 삶의 리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가를 사랑한다는 마음 하나”만으로 모인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누구는 교사이며, 또 누구는 회사원, 디자이너, 작가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쁜 건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공통점이 없어 보이지만 성가대를 향한 마음가짐이라는 가장 중요하고 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가는 두 배의 기도”라는 말을 익히 들어보셨을 텐데, 성가대의 합창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소리가 하나 되어 그 몇 배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그 감동을 짹하게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더욱 귀한 신앙의 자리라 믿습니다.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 그렇게, 우리의 찬미는 지금도 조용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노래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위에 또 하나의 찬양이 더해질 것임을 믿습니다. 

가톨릭직장인 틀린그림을 찾아라!!!

원본



틀린그림 5곳을 찾은 후
사진을 찍어주세요.

12월 31일(수)까지 QR코드를
통해 사진을 보내주시면
20명을 추첨하여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동방박사의 경배’는 별빛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향한 동방박사들이,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드리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먼 길을 걸어온 박사들은 구유 앞에 무릎을 꿇고, 경건한 마음으로 황금과 유향, 물약을 바칩니다. 이 예물은 각각 왕의 권위, 신성한 향기, 그리고 고난을 예고하는 사랑의 헌신을 상징하며, 인류를 위한 구원의 여정을 보여주며 화면 속에는 귀족과 평민, 부자와 가난한 이들이 함께 모여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경배하고자 합니다. 언덕을 돌아 폐허가 된 고대의

지난호
정답





틀린그림



〈동방박사의 경배〉

미국 워싱턴D.C., 내셔널갤러리

아치를 지나 마구간으로 향하는 긴 행렬은, 옛 시대가 지나가고 새 빛이 세상에 드는 순간을 은유합니다.

후대에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 마구간 지붕위의 공작은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약속을, 옆의 참매와 꿩은 선과 악의 싸움을 상징하며 동방박사들 곁에 그려진 개의 모습은 인간이 하느님께 드리는 충성과 헌신을 보여줍니다.

지름 137.7cm의 톤도(tondo, 이탈리아어로 '동글

다'는 뜻) 형식으로 제작된 이 작품은, 신심이 깊었던 도미니코회 수사 프라 안젤리코(Fra Angelico, 1387 - 1455)가 메디치가의 의뢰로 시작하였고, 이후 가르멜 수도회 수사 필리포리피(Fra Filippo Lippi, 1406 - 1469)가 완성하였습니다.

르네상스의 조화로운 원근법과 섬세한 인물 표현, 그리고 밝고 따스한 색조는 단순한 미술적 성취를 넘어, 아기 예수님이 인간의 세계에 드러나는 장면을 절제된 아름다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



직장사목팀 송년미사

일시 12월 11일(목), 19:30
장소 명동 파밀리아채플
주례 직장사목팀 사제단

2026년 해외 성지순례

일시 2026. 3. 7(토) ~ 9(월)(2박 3일)
장소 기타큐슈 야마구치
회비 1,120,000원(변동 가능)
인원 선착순 35명(조기마감 가능)

직장공동체 도보 순례

11월 1일(토) 13개 교우회, 81명 참석(새남터→한남동)
하신 도보순례가 진행되었습니다. 도보성지순례에 참석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도보순례 전 새남터성지 성당앞에서

2025년 세례성사

11월 23일(주일), 13:00 명동 파밀리아채플에서 직장
사목팀 사제단 주례로 17분 세례성사, 1분 첫영성체가
있었습니다. 세례성사를 받으신 분들께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직장명	인원	직장명	인원
광진구청	1	성동구청	1
구로구청	2	양천구청	2
국민건강보험공단	1	외교부	1
국회	2	중구청	1
서울시청	3	한국씨티은행	2
서초구청	1	기타	1

★문의 ☎ 02-727-2078, 010-7354-2078

 **gikjang2562**



빈	배	이	야	기	

한 수도자가 호수 위에 배를 띄우고
명상에 잠겼습니다.
고요한 시간 속,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다른 배가 부딪쳤습니다.

수도자의 마음에 짜증과 분노가
일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감히 내 명상을 방해하다니.’

그는 눈을 뜨고 소리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눈앞에 있던 건
빈 배였습니다.

그 배는 그저 부두에서 흘러나와
떠다니던 것이었습니다.
순간, 분노는 사라졌습니다.
빈 배에 화낼 수는 없으니까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많은 충돌이 있습니다.
사람들과, 상황과, 예기치 못한 일들과
부딪힙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상처받는 이유는
충돌 그 자체보다,
그 뒤에 ‘누군가의 의도’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충돌은 빈 배와의
만남일 뿐입니다.
악의도, 해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인생이라는 호수 위의
우연한 스침일 뿐입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감정의 파도에 덜 흔들립니다.
삶의 부딪힘 속에서도
고요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인생의 바다를 항해하는
숙련된 탐험가가 됩니다.

빈 배를 만날 때마다,
그저 미소 짓고 지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나는 스스로
빛나는 줄 알았는데
당신이나를
비추고 있었었습니다

행복